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영수지 악화일로

지난해 매출액·당기순이익 전년과 대동소이 제주포럼 제외하면 대규모 행사 전무한 실적 신상품개발 담보 상태... 원도정 부담만 가중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의 경영실적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5일 ICC제주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124억원으로 전년도 119억원 보다 5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ICC제주의 식음료 매출액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고, 2016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제주문화교류사업을 대항한 것을 제외하면 올해 매출액 증가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컨벤션 관련 상품 개발이나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마이스 상품 개발 현황을 보면 중문에 있는 요트 업체와 연계한 요트투어와 동·하절기 도

민대상 이벤트가 고작이다.

대형 국내·외 행사 유치도 부진하다. 지난 2014년까지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렸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를 제외하면 올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대형 국제행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올해 개최를 확정된 83건의 국내·외 행사중 1000~20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는 14건에 불과하다.

ICC제주는 지난 2015년 채무성격의 회계계정인 선수금을 매출액으로 반영했다가 회계자료를 조작해 매출실적을 부풀린다는 제주도의회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14년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당시 손정미 이사장은 전문경영인으로

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제주도는 이같은 평가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손정미 이사장 취임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영실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더 큰 제주 실현'을 구상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정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도내 한 마이스 전문가는 "다른 지방 컨벤션센터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자체 기획·추진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제주도에 행사사를 유치하지 못하면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전문가 영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대리기자

황교안 권한대행 대선 출마여부에 촉각 새누리 "본인의 문제... 온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더민주 "탄핵된 정권 2인자 불과, 자중자에 마땅"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보수층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눈길을 보내면서 그의 대선 출마 여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새누리당은 황 대행에 대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란을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한 듯 출마 결정은 본인의 결정으로 미뤘다.

인 위원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생긴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강요하는 바는 아니다"라며 "(출마 여부는) 본인의 정치적 결단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자리가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아침 여론조사를 보니가 (황 권한대행이) 12%까지 나온 것도 있더라. 대선 후보 가능성에 대해서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체성이 맞다면 새누리도 오시면 좋겠다"며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황 대행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생겨 국정 혼

란을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한 듯 출마 결정은 본인의 결정으로 미뤘다.

인 위원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생긴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강요하는 바는 아니다"라며 "(출마 여부는) 본인의 정치적 결단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자리가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은 황 대행이 탄핵 정국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행은 탄핵된 정권의 2인자에 불과하다"며 "깨알만큼의 양심이 있다면 새누리당은 대선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황 대행 역시 자중자에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공모 도, 7개 사업·3억여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다문화가족지원 원 보조사업 공모를 6~13일까지 진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소재, 활동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며, 지원 규모는 3개 분야·7개 사업에 총 3억1500만원이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과 역량강화 지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 3개 사업에 1억6500만원, 도내 취업지원기관 연계 결혼 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등 다문화가족 사회경제활동 분야 1개 사업에 1억원, 다문화 이해교육과 문화교류 지원 등 다문화 인식 제고 분야 3개 사업에 50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제주도청 여성가족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용머리에 설치된 철제교량 리모델링 예산이 배정됐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늦어지면서 리모델링 공사 또한 지연되고 있다. 이태윤기자

용머리 철제교량 리모델링 공사 언제쯤...

사업비 확보 불구 세부계획 늦어지며 지연

경관훼손 논란을 빚었던 용머리해안 철제교량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머리에 설치된 철제교량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예산이 올해 1월 2억원 가량 배정됐지만, 행정에서 세부적인 공사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는 당분간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최근 찾은 용머리해안에는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탐방객들로 북적였다. 또한 절경을 감상하기 위해 모여든 탐방객들은 자연이 빛을 지질 형상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기는가 하면, 감탄사를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해안절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철제교량을 보자 감탄은 이내 탄식으로 바뀐다.

관광객 임 모(28)씨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관광지에 인위적인 다리가 놓여 위화감이 든다"며 "다리를 제작할 당시, 전문가들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용머리에 설치된 철제교량은 서귀포시에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낙석 사고 이후 통행이 금지됐던 용머리해안 관광로에 예산 5억70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6월 설치를 완료해 개방했다.

하지만 철제교량은 관광객과 도민 등으로부터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흉물스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는 철제교량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예산을 지난 1월 2억원 가량 확보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교량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잡지 않았을 뿐더러 공사 이전에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화재청과의 협의 또한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 관계자는 "올해 1월 말 용머리 철제 교량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한 상태"라며 "아직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건축물·교량 등 9곳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0억2400만원을 투입해 지진에 대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도는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성신교 등 9개소에 대해선 보강공사를, 제주개발공사 갈굴1공장, 제3·4산목교 등 15개소에 대해선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도청 1청사 별관,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등 3개 건축물과 성신·의귀·제2송천·영실·한라·한밭교 등 도로시설물 교량 6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양명정기자 yj@ihalla.com

4대 권역 균형발전 밑그림 그린다

동·서·남·북 개발 축 토대로 과제·핵심사업 실행방안 제시 국토연구원·제발연 용역 시행

제주 지역을 동·서·남·북 4대 권역으로 나눠 균형 발전 시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내년 2월쯤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4대 권역에 대한 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간하고 5일 밝혔다. 용역은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이 맡았으며 용역 결과는 내년 2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동부권역은 성산·구좌읍과 표선·우도면으로 제2공항을 개발축으로 삼고 있다. 서부 권역은 대정·한림읍, 한경면이며, 개발축은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이다.

제주시 동지역과 애월·조천읍, 추자

면을 포함한 북부권역의 개발축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신항이 제시됐고, 대정·한림읍과 한경면이 속해있는 서부권역은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을 개발축으로 삼았다.

앞으로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인구, 자원, 경제 수준 등 4대 권역의 현황을 비롯해 그 지역의 교통·환경·산업 이슈를 분석한다. 제주도는 이렇게 분석한 이슈에 기초해 개발 전략과 과제를 도출한다. 또 용역 기간 4대 권역의 발전 비전과 발전 목표를 수립해 핵심 사업의 투자계획과 가이드라인, 사업 시행방안, 권역별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주민들 협의체나 자문단을 구성해 이들 단체가 용역 시작 단계에서부터 완성 때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고 잦은 5·16도로 1100도로 시설 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5·16도로와 1100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의 '안전한 지역사회 모델사업'에 선정된 5·16도로에는 델리네이터(야간 안전 운행을 위한 시선유도시설)와 새로운 가드레일이 시설되고, 미그림 방지 포장도 이뤄진다.

도 5·16도로 전체 구간 중 관음교와

수악교를 잇는 18.5km 구간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시속 40~50km로 하향 조정된다.

1100도로도 마찬가지로 어승생 삼거리와 옛 탐라대 사거리로 오가는 19km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시속 40~50km로 떨어진다. 아울러 가드레일을 새롭게 시설하거나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공사도 진행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안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및 토지·물건조사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자	위치	면적	사업기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시 월평동 24번지 일원	848,163㎡	2016.12.26.~ 2019.12.31
- 대상토지 및 물건**: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 일체
* 세부 목록은 개별 통지 및 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 및 이의신청**: 2017. 2. 6(월) ~ 2017. 2. 20(월) (15일간)
 - 열람방법: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 확인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2017. 2. 20. 까지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열람시간: 09:00 ~ 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104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첨단산업처 전화(064)797-5542, 팩스(064)797-567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번 태영빌딩 903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서울사무소: 전화(02)761-2938, 팩스(02)761-319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청사) 협력관실(식당동 2층)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8길 5 아라동사무소(2층 도서관)
- 보상시기**: 2017년 4월부터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절차 및 구비 서류 등은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2017. 2.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2017 드론 교육지도사 교육생 모집 요강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지역주민행복드림JOB사업단에서는 드론교육지도사 중급 과정에 대한 **창직 교육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15명 교육생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교육개요**

- 일 시: 2017년 2월 13일~17일(5일간)/ 12시30분~18시까지
- 교육장소: 제주대학교
- 모집인원: 15명 (선착순 2월 7일 18시까지 전화 접수)
- 지원자격: 주민등록상 제주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제주도민 중 기본적인 드론 조종이 가능하며, 카메라 기능이 있는 드론을 소지하고 계신 분
- 접수방법: 제주대학교 지역주민행복드림JOB사업단 (064)754-4491, (064)754-4493으로 전화 접수
- 유의사항: 개인의 일정 시간을 고려하여 5일 모두 참석 가능하신 분만 수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안내**

- 교육내용: 드론 비행 및 촬영기법
- 교육준비물: 드론 및 필기구(드론은 개별로 준비하시어 하며 교육과정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메라 기능이 있는 드론이어야 합니다.)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사업단 홈페이지 www.jobdream.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은 064-754-4493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지역주민행복드림JOB사업단
community happiness dream job business group

꽃자왈 생태해설사 전문교육

꽃자왈공유화재단에서는 학생들과의 즐거운 환경 수업을 고민하는 해설사 여러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전문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인정한 수업 명인 교사, 선생님들과 수업 방법을 고민하는 수업 코칭 교사, 교육분야 신진직으로 선정된 교사의 강의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한 수십 년의 노하우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교육주제: 즐거운 학교 교육 방법**

□ **교육기간: 02.23(목)~02.24(금) 저녁 6시~9시 02.25(토) 오후 2시~5시**

□ **장소: 벤치마루 10층 세미나실**

□ **대상: 학교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해설사 30명**

□ **신청 기간: 02.06(월)~02.10(금)**

□ **신청 방법: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후 이메일 접수**

□ **수강료: 10만원(교재비 포함, 후원회원 20% 할인)**

□ **문 의: 064-783-6047 (담당 강승일)**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jejutrust.net) 참조

꽃자왈공유화재단
꽃자왈생태체험관